"높아진 국격에 자부심…촛불열망 생각하면 숙연"

문 대통령이 되돌아 본 임기 5년

"누구도 부정 못할 빛나는 업적" 자평

정치·사회 개혁 과제 아쉬움 표출

"대한민국은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부러움을 받는 위대한 국민의 나라입니다. 높아진 국격에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9일 청와대에서 퇴임연설을 하면서 그동안의 국정 성과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년은 힘들었지만 대한민국은 더 큰 도약을 이뤘다"면서 "그 주역은 단연 우리 국민"이라며 이날 연설문을 '위대한 국민께 바치는 헌사'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퇴임 연설에서 이같이 성과를 강조한 배경에는 대선패배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정부'로 규정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고려해서라도 성과를 거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인식도 엿보인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동안 있었던 많은 자랑스러운 일들이 대부분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다"며 "그야말로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위기 때 더욱 강해지는 우리 국민의 높은 역량에 끊임없이 감동했다"며 "국민도, 정부도, 대통령도 정말 고생 많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자신을 지칭해 "고생 많았다"고 표현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그만큼 방역에 있어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는 언급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는 온갖 시련과 역경을 딛고 일어선 것이기에 더욱 값지다.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가 됐다"며 "누구도 부정 못 할 빛나는 대한민국의 업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국정운영에서 아쉬웠던 점을 일부 연설에 담기도 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한 촛불광장의 열망에 우리 정부가 얼마나 부응했는지 숙연한 마음이 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의회 민주주의 회복 등 정치·사회 분야 개혁 과제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언급이다.

나아가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등을 둘러싼 진영대립으로 결국은 정권교체까지 벌어지게 된 지금의 정치상황을 염두에 둔 언급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이라고 차기 정부에 조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9일 행사장인 국회에서 막바지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 vs 국힘…광주시장 선거 본선 경쟁 본격화

강기정, 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

광주 국회의원 원팀 구성 합의

주기환, 5대 비전·8대 공약 발표

강기정

주기환

6·1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각 정당의 후보 확정이 마무리된 광주시장 선거가 본격화 됐다.

민주당은 텃밭인 광주에서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을 계기로 변화하고 있는 지역 민심을 통해 역대 지방선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지지율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오는 11일 중앙당으로부터 공천장을 받은 뒤, 본격전인 본선 채비에 뛰어들 예정이다. 12일 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본선 경쟁에 나선다.

또한, 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과 '원팀'을 통한 선거 승리와 지역발전에 힘을 합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 후보는 지난 8일, 경선 승리 이후 처음으로 광주지역 국회의원 7명(송갑석·이병훈·윤영덕·조오섭·이형석·이용빈·민형배)과 오찬을 갖고 '민주당 원팀'으로 선거 승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광주지역 8명 의원 가운데 무소속의 양향자 의원만 빠졌다.

이날 회동은 강 후보와 송갑석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이 사전 조율을 거쳐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은 강 후보 선대위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하는 데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예비후보 선대위 측은 오는 12일 첫 회의을 열고 본선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 주기환 예비후보도 9일 광주 변화를 위한 5대 비전과 8대 핵심 공약, 70개 실천 공약을 제시하고 본격적으로 표밭갈이에 나섰다. 특히 국민의힘은 11일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켄벤션센터에서 주 후보를 비롯한 지방의원 후보자들과 함께 필승 대회 성격의 선대위 회의를 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필승을 다질 계획이다. 주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7조원 수준인 광주시 예산을 2년 내에 10조원 규모로 키워 양질의 일자리 3만 개 이상을 만들어 더 살기 좋은 광주, 살 맛 나는 광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 후보는 이날 ▲인공지능 대표도시 조성 ▲미래모빌리티 선도도시 구축 ▲광주 군 공항 이전 ▲서남권 원자력의료원 설립 ▲복합 대형쇼핑몰 유치 ▲복합놀이공원 조성 ▲5·18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 등을 공약했다. 지역 최대 현안인 군 공항 이전 방안으로는 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도 제안했다. 지난 대선부터 이슈로 떠오른 복합쇼핑몰 유치와 관련해서는 소상공인·기업·광주시·시민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청년 중심도시 조성 ▲황룡강 장록습지 국가 정원 조성 ▲AI 영재고등학교 유치 ▲어르신 전동차 자부담금 지원 ▲임대형 청년 행복주택 1만호 공급 ▲광주역 지하차도 개설 등을 공약했다.

장연주 정의당 후보와 김주업 진보당 후보 등도 각계 각층과 정책협약에 나서고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지지세 확장에 나서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尹, 시민들 사이 180m 걸어 입장

박근혜 참석, 이재명·유승민 불참

윤 당선인 오늘 대통령 취임식

9일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대통령들과 달리 윤석열 당선인은 시민들 사이로 걸어서 입장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취임식의 콘셉트를 '소통'에 맞췄다"며 "윤 당선인이 국회 경내에 들어오자마자 180m 가량을 걸어가며 시민들과 인사도 나누고 '셀카'도 찍으면서 단상까지 이동, 최대한 '스킨십'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분수대를 지나 연단 밑에 도착하면 동서 화합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대구 남자 어린이와 광주 여자 어린이가 꽃다발을 전달한다.

이후 윤 당선인은 특별공로자 1호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인요한 박사 등 '국민희망대표' 20명과 손을 잡고 단상에 오른다.

1000명이 올라갈 수 있는 단상 가장 중앙 안쪽에는 윤 당선인 내외와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나란히 앉는다.

그 앞으로는 각 정당대표 및 주요인사, 5부요인, 국빈, 전직 대통령 및 유족, 주요 외빈, 사법·헌법기관, 전직 5부 요인, 국회 상임위원장이 자리한다.

이들을 둘러싸는 형태로 특별초청단, 각계대표, 재외동포, 행정부, 입법부, 주한 외교단, 외빈, 시도지사·의회 의장의 자리도 준비된다.

특히 취임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하는 점도 눈길을 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건강상 문제로 불참의사를 밝힌 권양숙 여사 외에 이순자·김윤옥 여사 등도 모두 참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대선에서 윤 당선인의 경쟁자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 유승민 전 의원은 참석하지 않는다.

윤 당선인의 취임선서는 단상 밑에 마련된 돌출 무대에서 진행된다. 취임사 발표는 약 25분간 진행된다. 단상 좌우에는 청와대 개방 현장을 실시간 중계하는 스크린도 설치된다.

취임식이 끝난 뒤 윤 당선인은 다시 걸어서 국회 출구까지 이동한다. 이후 용산 국방부 청사 인근 경로당과 어린이 공원을 방문한 뒤 새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해 업무를 개시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